

직물 소재와 색상, 톤에 따른 감성 이미지 평가 - 한산모시와 면을 중심으로 -

김재숙 · 이순임[†]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Effects of Color, Tones values on Image Perception of natural dyeing of Han-san Mosi and cotton

Jae-sook Kim · Soon-im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4. 10. 1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color, tone, perceiver's gender on image perception of natural dyeing of cotton and mosi.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The 7-point semantic). The stimuli was 20 fabrics manipulated with two kinds of fabrics(cotton, mosi), five colors(red, yellow, blue, green, purple) and two tone variations. The subjects were 412 adults in Daejeon and Kongju.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erceived image of the stimulus material consisted of 4 dimensions (attractive, conspicuous, hand, weight) colors, tons, materials as well as perceiver's gender affected on some selected image dimensions : color affected on the four image dimensions, tone affected on the conspicuous, hand and weight images, materials affected on the attractive and hand image and perceiver's gender affected on the weight image. Interaction effects existed among colors, tons and materials on the conspicuous image. In conclusion the results support gestalt theory in which the sum of the parts is bigger than the whole and design strategics for the Mosi fabrics should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persued design image as well as target consumers.

Key words: Tone, Color, Image perception, Mosi, Natural dyeing; 톤, 색상, 이미지지각, 모시, 천연염색

I. 서 론

21세기 패션의 변화는 매우 민감하고 고 감성 지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패션소비욕구는 보다 차별화된 감성적 표현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켰고 치열한 패션업계의 경쟁은 특징적인 디자인 개발 및 소재의 심미적인 가치를 매우 중요한 핵심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첨단 신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한편 산업화

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인간 본성으로의 회귀에 대한 각성은 신 자연주의로 일컬어지는 패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천연섬유와 천연염료에 의한 색상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천연 섬유 중 모시는 통풍성이 우수하고 감촉이 깔 깔하여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여름철 옷감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널리 사랑받아 왔다. 또한 잘 손질하여 입은 모시옷의 자태는 입는 이의 품격을 한층 높혀 주어 시원함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욕구에도 잘 맞아 한국인의 정서에 좋은 이

[†]Corresponding author

Tel: 011-9803-2860, E-mail: 2soonim@hanmail.net

마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세모시는 섬세하고 우수한 품질로 인정 받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유이었으나 합성섬유의 편리함과 수공예적 생산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오고 있어 새로운 섬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수한 천연섬유의 특성은 가격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음으로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수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여야 하는 일은 우리의 정신과 뿌리를 지킴과 동시에 세계속의 한국으로 살아남는 생존의 전략이기도 하므로 모시를 다시 세인의 관심과 생활 속에 끌어내어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모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 획일적인 평직 모시 이미지를 벗어나 매력 있는 소재로서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겠으며 손질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여 편리함과 심미성을 향상시킨 고 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겠다. 또한 생산방식의 기계화로 생산단가를 낮추는 일은 모시소비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모시의 맥을 잇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산모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모시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디자인과 관계되는 연구는 희소하여 모시 소재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앞서 필요한 소비자의 소재와 색채 이미지 지각에 대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천연염료로 염색한 모시와 면을 비교하여 색상, 톤, 소재,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한 색상, 소재, 톤에 의한 상호작용의 유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색상과 소재의 추구이미지를 통한 디자인에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서 모시의 고부가가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천연 염색한 면과 모시의 색상, 소재, 톤, 성별에 따른 직물 이미지의 지각 차이를 알아본다.
- 둘째, 소재의 이미지 지각에 지각자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채 이미지 지각

지각이란 인간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부대상의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색채를 파악하는 것을 색채지각이라고 한다. 색은 빛이라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하여 망막에 있는 광 수용기인 간상체와 추상체에 전달되면 광수용기 세포의 시각색소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낸다. 전기적 신호는 신경망을 거쳐 외측상핵(lateral geniculate nucleus)에서 시냅스를 이룬 후 대부분 대뇌피질의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visual cortex)로 투사되어 색을 지각하게 되고(권영걸, 2002) 지각자의 색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여 심리적인 색 이미지가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색을 인식하게 된다. 지각(perception)과 인식(cognition) 사이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으나 지각이 사물이나 실생활의 사건들이 뇌속에서 즉각적으로 분류되기를 요구하는 반면 인식은 구조적, 의미론적 분류 순서상의 상위 과정이나 사물, 사건들의 정신적 이미지를 언급한다(Gunilla Derefeltdt, 2004).

이미지란 머리속에 떠오르는 어떤 형상(shape)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이미지를 매개체로 하여 이끌어 내지는 것이다(Arnheim, 1969)라고 하였다. 즉, 이미지는 감각을 일으키는 자극원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감각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혜숙, 1997).

Schupp, Lutzenberger, birnbauer, miltner와 Braun에 따르면 정신적 이미지는 내적인 발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행동으로 개념화 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색의 이미지를 지각한다는 것은 초기의 색단위인 hue, colorfulness, brightness를 가진 perceived color의 과정을 거쳐 시각적 작업에 의한 구조적 범주로 분류된 최종적으로 인식된 색(Gunilla Derefeltdt, 2004)이라고 할 수 있다.

2. 색의 심리적인 특성

색의 특성은 색 단위인 밝기, 포화도, 색상을 받아들이는 지각의 과정과 정신적인 이미지를 함께 인식함으로써 구별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환경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색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오랫동안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색에 대한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연상 및 감정을 통해 색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선호하는 색, 불쾌한 색 등의 색의 기호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의하여 색에 대한 심리적인 선호 및 지각에 차이가 있게 되며, 또한 색을 통해 맛, 온도, 무게, 팽창, 수축, 깊이감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정서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이 있는가 하면 차가와 보이는 색이 있고 무겁게 혹은 가볍게도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게의 지각에 대한 실험들은 색이 밝을수록 가볍게, 어두울수록 무겁게 지각되며 빨간색이 가장 무겁게 파란색, 녹색, 오렌지, 노란색의 순서로 점점 가볍게 인식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색 자체보다는 색의 명도에 의해 중량감을 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춘일, 1989).

장파장의 색과 단파장의 색은 진출, 후퇴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망막의 메카니즘으로 인하여 장파장의 색은 망막의 뒤쪽에 상이 결상되므로 정확한 상을 얻기 위한 수정체의 활동으로 실제의 상이 앞으로 끌어당겨져 나타나는 결과로서 앞으로 진출해 보이며 단파장은 그 반대의 결과로서 후퇴하여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Nilgun Comgoz, 2003). 이러한 현상은 명도와 채도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명도가 높아지면 색상은 가까운 거리에 놓인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이로 인하여 물체가 팽창하여 보이는 결과를 낳고 반대로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면 물체가 수축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김춘일, 1989). 이러한 색의 느낌에 관한 것 역시 색의 물리적인 지각과 더불어 심리적인 작용이 함께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간접적인 인식연상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Fehrman, 2000).

이러한 색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들이 일관되게 귀착되는지의 실험들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탐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결과 색 선호도는 단순하게 빨강, 파랑, 노랑과 같은 색상의 문제가 아니며 색상, 명도, 채도의 복합적인 속성에 의해 바뀌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색은 자체의 불변의 quality가 아니고 대상과 주변의 색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하며 모든 색은 강도(強度)의 변화에 따라 moods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하였다(Fehrman, 2000).

한편 추선영(2002)은 그의 연구에서 패션에서의 색은 단순히 색만의 독립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의 질감과 상호 연관된 이미지로서 표현된

다고 했다. 패션 소재를 구성하는 요소인 색채와 재질변인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아한, 편안한, 개성적, 가벼운, 단순한 이미지에는 질감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성적인 이미지에서는 질감의 영향이 색의 이미지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색채와 직물소재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색의 특성은 색상만을 독립시켜 논할 수 없고 항상 명도와 채도에 따른 톤의 이미지와 그 색을 함유한 재료의 질감도 함께 영향을 받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색의 상징성

색에 대한 반응은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정서적 경험을 낳고 감성에 의한 연상을 동반함으로써 일찍이 고대의 문명에서는 상징적 의미로 색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문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서양에서는 紋章의 색을 통하여 용기, 충성, 정직, 순결함, 죽음, 왕과 지위 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Fehrman, 2000).

이러한 색의 상징적 의미들은 또한 주술적으로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을 통해 색을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 그에 따르면 음의 색과 양의 색이 구별되어 사용되며 방위에 따라 색 사용의 규칙이 있었다(임영주,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색의 지각은 매우 복잡한 상호 연관에 의해 인식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 형성되어온 심리적인 연상 작용은 고유한 색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인 색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는 등 각 나라마다 독특한 색에 대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색의 사용에 의식적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색채의 사용은 매우 민감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시대의 패션시장에서 제품의 주요한 요소로 추구되는 부분이 감성적인 소재디자인임을 미루어 볼 때 의류소재와 색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에서 의류 소재와 색의 상호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이 천연 염색된 면과 모시의 색상, 소재, 톤, 성별에 따른 직물이미지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독립변인 색상(5)×톤(2)×소재(2)×성별(2)에 의한 요인설계로 구성되었고 의미미분 척도를 제시하는 준 실험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1. 측정도구

1) 소재 자극물

소재는 8승 한산모시와 40수 면이었고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보라의 5가지 색상을 진한 톤, 연한 톤의 2가지의 톤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극물의 크기는 15×10cm이었다.

2) 소재 자극물의 천연염색

각각의 염색 재료는 소목, 쪽, 홍화, 치자를 섬유무게와 동량으로 측량하여 염액을 추출하여 엷은 색은 1회, 진한 색은 3회 반복 염색하였다. 각 염료별 톤을 맞추기 위해 반복염색의 횟수나 농도를 조절하였으나 모시와 면의 염색성이 달라 두 섬유의 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못하였다.

① 빨강(소목)

염액추출 : 섬유무게와 동량의 소목을 30배(OWF)의 물에 넣고 30분간 끓여서 추출(1회 사용량).

선매염 : 3% 명반액(OWF)에 섬유를 넣고 상온에서 20분간 매염.

염색 : 매염 처리된 섬유를 염액에 넣고 30분간 끓여서 염색.

② 노랑(치자)

염액추출 : 섬유무게와 동량의 치자를 30배(OWF)의 물에 30분간 끓여서 추출.

염색 : 염액에 섬유를 넣고 30분간 끓여서 염색.

후매염 : 3% 명반액(OWF)에 염색된 섬유를 넣고 상온에서 30분간 매염.

③ 파랑(쪽) : 발효된 쪽물에 10분정도 담그어 염색(1회염색).

④ 녹색(쪽+치자) : 쪽으로 염색한 천을 건조시킨 후 치자 액에 넣어 30분간 염색하였고 매염처리 하지 않음.

⑤ 보라색(쪽+홍화)

홍화의 염액추출 : 섬유 무게와 동량의 홍화 꽃잎을 물에 씻어 노랑 색소를 완전히 제거한 후 꽃잎 무게의 8%의 탄산칼륨을 용해시킨 물에 꽃잎을 넣어 홍 색소를 추출함. 여기에 꽃잎 무게의 10%의 구연산을 가하여 중화시킴.

염색 : 쪽으로 염색된 천을 홍화 염액에 넣어 재 염색.

3) 의미미분 척도

피험자 당 한 개의 소재 자극물을 제시한 후 자유 응답 식으로 형용사 쌍을 표집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형용사를 중심으로 25개의 양극형용사 쌍을 7점 척도로 제작하였고 의류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의 준거집단과 토의를 거쳤다.

2. 연구의 진행

대전, 충남지역 성인 남녀 412명을 편의 표집하여 피험자로 선정하였으며 각 피험자에게 자극물 1매와 의미미분 척도를 제시하고 시간제한 없이 소재 이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002년 8월에서 2003년 1월 사이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총 412개의 응답지 중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398개의 Data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료의 분석

신뢰도는 Cronbach Alpha에 의하여 검증하였고, 타당도는 준거집단과 논의를 하였으며 이미지 차원의

<Table 1> 실험용 자극물의 color특성 (Muncell color system)

소재		색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보라
모시	진한		7.5R 3/10	5PB 5/6	2.5Y 8.5/10	7.5GY 5/4	5P 3/4
	연한		7.5R 7/6	5PB 7/4	5Y 9/6	5GY 7/6	5P 6/4
면	진한		7.5R 4/8	5PB 5/4	2.5Y 8.5/8	10GY4/4	5P 4/6
	연한		7.5R 8/4	5PB 8/4	5Y 9/4	5GY8/4	5P 8/4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으로 도출되었다. 독립변인 간의 이미지 차이는 3원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성별에 따른 각 이미지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소재의 이미지 차원의 구성

이미지 차원은 매력성, 현시성, 촉감, 중량감의 4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의복착용자의 인상 차원인 사회성, 평가성, 현시성, 매력성의 4가지 차원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극물이 사람을 제외하고 단지 소재로만 제작되어 소재 이미지만을 측정된 결과로 예측된다.

2. 색상·톤·소재 및 피험자 성별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소재의 색상, 톤 및 소재의 종류는 4개의 소재이미지

평가에 유의한 차이를 주었으며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중량감에서만 나타났다. 매력성 이미지 평가에서 소재와 색상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현시성 이미지에는 소재의 톤과 색상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촉감의 이미지 평가에서는 소재, 색상, 톤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중량감에서는 소재의 톤, 색상 뿐만 아니라 성별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매력성 요인이 성별과 소재 사이에 존재하였고, 현시성에서는 색과 톤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톤과 소재, 색과 소재의 상호연관성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재는 각 변인과 모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재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의복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소재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차후 모시옷의 디자인에서 모시의 소재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1) 색상에 따른 직물 이미지의 차이

색상에 따른 직물 이미지는 각 요인 모두 매우 유의

<Table 2> 소재의 이미지 차원의 분석

이미지차원	매력성	현시성	촉감	중량감
의미미분 척도				
새련된 - 촌스러운	.812			
멋있는 - 멋없는	.783			
우아한 - 천박한	.767			
매력있는 - 매력없는 외 5개 쌍	.753			
화사한 - 우중중중한		.787		
밝은 - 어두운		.770		
맑은 - 탁한 외 2개 쌍		.741		
부드러운 - 뻣뻣한			.746	
매끈한 - 까칠까칠한			.728	
여성스러운 - 남성다운 외 4개 쌍			.528	
얇은 - 두꺼운				.726
가벼운 - 무거운 외 2개 쌍				.613
설명변량비율(%)	5.29(21.17)	3.38(13.52)	2.97(11.90)	2.25(9.03)
총설명변량비율(%)	55.62			

<Table 3> 색상, 톤, 소재, 성별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매력성		현시성		촉감		중량감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주효과	색 (A)	4.77	5.74***	9.86	14.54***	12.31	19.16***	4.20	5.16***
	톤 (B)			32.06	47.31***	5.42	8.44**	22.36	27.51***
	소재 (C)	26.33	31.68***			50.12	78.02***		
	성별 (D)							11.35	13.96***
2원상호작용효과	A×B			6.44	9.50***				
	B×C			5.80	8.56*				
	A×C			1.63	2.40*				
	D×C	4.97	5.98*						

*p<.05, **p<.01, ***p<.001

하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촉감 이미지와 현시성 이미지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보라색을 가장 매력적인 색으로 지각하였고 빨강, 파랑, 녹색, 노랑의 순서로 매력성을 평가하였으며 노랑을 가장 매력이 없는 색으로 보았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노랑이 가장 현시적인 색으로 지각했으며 파랑, 녹색, 빨강, 보라의 순서로 현시성을 평가하였다. 촉감 차원에서는 빨강을 가장 부드러운 색으로 지각했으며 노랑, 보라, 녹색, 파랑의 순서로 촉감을 평가하였다. 중량감은 파랑을 가장 가벼게, 녹색, 보라, 노랑, 빨강의 순서로 무겁게 지각하였다. 여기서 색채이론의 중량감에서는 노랑, 오렌지, 녹색, 파랑, 빨강의 순서로 무겁게 지각하는 것과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색채이론에서는 노랑을 가장 가벼운 색으로 지각하는 반면 실험결과는 파랑을 가장 가벼운 색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천연 염색한 소재의 느낌이 일반적인 색상의 이미지와는 다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모시와 면 소재의 색상 선택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 톤에 따른 직물 이미지 차이

톤의 영향은 매력성을 제외한 현시성과 촉감, 중량감 이미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현시성 이미지에서 톤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에는 중량감 이미지가 크게 나타났다.

연한 톤 때 현시적이며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진한 톤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고 뻣뻣하고 무겁게 지각하였다. 현시성 이미지와 중량감 이미지에서 색상의 효과보다 톤의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4>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원

색	요인	노랑	빨강	파랑	녹색	보라	F-value
매력성		-3.4 D	.23 AB	-.01 B	-.24 BC	.34 A	6.98***
현시성		.67 A	-.14 B	-.05 B	-.13 B	-.32 B	12.06***
촉감성		.36 A	.37 A	-.56 C	-.15 B	-.01 B	12.92***
중량감		.07 B	.39 C	-.36 A	-.10 AB	-.01 B	5.99***

*** $p < .001$ 숫자는 평균요인 값
알파벳 문자는 Duncan의 다중범위에 의한 집단 구분 표시

3) 소재에 따른 직물 이미지 차이

소재에 따른 직물 이미지는 매력성과 촉감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시는 매력적인 소재로 면은 촉감성이 좋은 소재로 나타났다. 촉감성은 부드러운, 따뜻한, 섬세한 등의 형용사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의 여름철 의류로는 부드러우며 따뜻한 소재의 면보다는 까칠까칠하고 시원한 모시가 선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성별에 따른 직물 이미지 차이

성별에 따른 직물 이미지의 차이에서는 중량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같은 색이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무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매력성과 현시성에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에서는 색과 톤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 현시성에서는 톤과 소재, 색과 소재, 성별과 소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재는 현시성에서 톤, 색, 성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색과 톤은 매력성과 현시성에 각각 영향을 미

<Table 5> 톤에 따른 이미지 차원의 차이

톤 요인	연한	진한	t-value
	평균	평균	
현시성	.31	-.31	-6.43***
촉감성	-.11	.11	-2.16*
중량감	-.28	.29	-5.86***

* $p < .05$, *** $p < .001$

<Table 6> 소재에 따른 이미지 차원의 차이

소재 요인	면	모시	t-value
	평균	평균	
매력성	-.33	.32	6.83***
촉감성	.44	-.42	-9.38***

*** $p < .001$

<Table 7> 성별에 따른 이미지 차원의 차이

성별 요인	남자	여자	t-value
	평균	평균	
중량감	.27	-.17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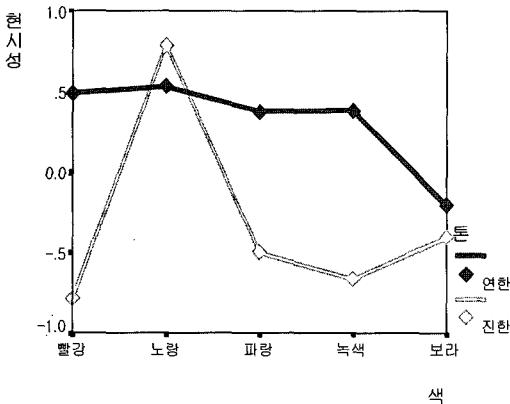
*** $p < .001$

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1) 툰과 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툰과 색상은 현시성 이미지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연한 툰이 좀더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 파랑, 녹색은 현시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나 노랑과 보라색은 툰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랑만은 진한 툰일 때가 오히려 연한 툰 일 때보다도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천연염색의 염색결과 타 색상은 염색 횟수를 반복함에 따라 명도가 낮아진 반면 노랑색은 염색 횟수가 명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복 염색 후 오히려 색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툰-색상(현시성)



2) 툰과 소재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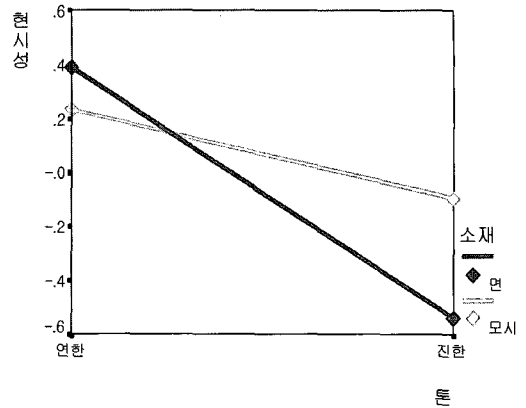
툰과 소재는 현시성에서 상호 연관이 있는데 면과 모시 모두 툰이 연할 때는 현시성이 높아지고 툰이 진할 때는 낮아졌다. 면은 툰에 따라 현시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나 모시는 면과 비교하여 그 영향이 적게 나타났다. 중간 툰부터는 모시가 면보다 현시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진한 툰으로 갈수록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여 모시가 면보다 현시성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시가 툰과 관련 없이 현시적 표현에 적합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시섬유의 조직이 성글어서 조직이 치밀한 면보다 눈에 잘 띄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색상과 소재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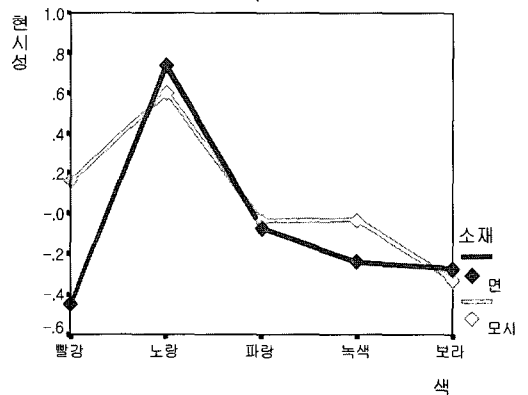
소재와 색상은 현시성 이미지에서 상호작용 효과

툰-소재(현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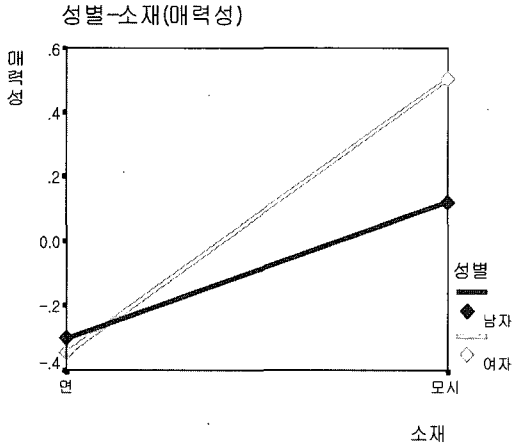
가 나타났다. 소재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노랑과 보라를 제외하고 모시가 면 보다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빨강과 녹색은 현시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노랑, 파랑, 보라는 소재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특히 파랑은 면과 모시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빨강과 녹색의 사용에 있어서는 소재에 따라 현시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색상-소재(현시성)



4) 성별과 소재의 상호작용 효과

소재와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매력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와 여자 모두 모시를 면보다 더 매력 있는 소재로 지각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모시를 매력 있는 소재로 평가하였다. 반면 면에서는 남성,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모시가 면 보다 비싼 소재임을 감안하여 매력성 차원에서 차별화되는 여성용 고급의류에 모시가 좀더 적합한 소재로 사료된다.



V. 결 론

1. 이미지 지각 차원의 요인 분석 결과 염색된 모시와 면의 이미지는 매력성, 현시성, 촉감, 중량감의 4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의복에 따른 인상형성 차원의 사회성, 평가성, 현시성, 매력성의 4가지 차원과는 다르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이 소재 샘플이었기 때문에 착용자의 인상이 포함되지않은 결과로 보인다.

2. 색상은 각각 매력성, 현시성, 촉감, 중량감의 4가지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에 따른 직물이미지는 보라색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노랑 색이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빨강과 노랑이 가장 촉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랑이 가장 가볍고 빨강이 가장 무거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색채이론에서 노랑이 가장 가벼운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모시 소재와 천연염색의 특성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4. 소재에 따른 직물 이미지의 차이에서는 모시는 매력적이며 현시적인 소재이나 촉감이 거칠다고 평가되었고, 면은 모시보다 촉감은 부드러우나 무겁고 평범한 소재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감성은 부드러운, 따뜻한, 섬세한 등의 형용사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의 여름철 의류로는 부드러우며 따뜻한 소재의 면보다는 까칠까칠하고 시원한 모시가 선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성별에 따른 직물 이미지 지각의 차이는 중량감에서 같은 색이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가볍게 지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색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모시를 더 매력 있는 소재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복과 남성복의 디자인에서 중량감과 소재의 선택에 있어 차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성 옷이 여성 옷에 비하여 중량감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며 모시는 여성 옷에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톤과 색상, 톤과 소재, 색과 소재, 성별과 소재가 현시성과 매력성 요인에 상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재가 현시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의류의 선호도에서 소재가 색상과 톤보다도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색상별로 살펴보면 노랑은 현시성에서 톤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파랑은 소재에 따라 중량감에 차이가 있음을, 빨강과 녹색은 모시일 때 더 현시적인 것을, 보라색은 소재의 영향을 덜 받으며 가장 매력적인 색으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재에 따라 색과 톤의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형태주의 이론을 지지하였으며 여름철 의류의 제작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 용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모시와 면의 색상, 톤, 성별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모시를 소재로 한 디자인에서 추구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섬유소 섬유이지만 모시는 면과 다른 심미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소재의 색상과 톤에 따른 직물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결과는 고 부가가치를 위한 전략으로 천연염색한 모시 소재의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녀에 따라 소재 이미지 지각에 따른 차이는 소비자 집단에 따라 디자인 전략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후속 연구로는 지각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직업, 거주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규명되어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이 연구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천연염색뿐만 아니라 직조방법과 자수, 번 아웃과 같은 다양한 장식효과를 중심으로 모시의 소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통하여 모시제품의 고 부가가치화 전략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영걸, 권은순, 김기환 외 12명. (2002). *컬러리스트*. 도서출판사국제.
- 김미지자. (1996). *textile과 colou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 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유진, 이경희. (2003). 현대패션에 대한 감성과 감정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3/4), 419-420.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 튠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6.
- 김춘일 역. (1981). *미술과 시지각*. 기린원.
- 문주연,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 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112.
- 박수진, 조정자, 장준익, 김길남. (1997). 직물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어휘 모형. 97 *한국의류학회지*.
- 이선화. (1991). *텍스타일디자인*. 미진사.
- 이혜숙(1997).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11.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제1,2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716.
- 장수경. (1999).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표현유형, 구성형식 및 적용대상에 따른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 추선영, 김영인. (2002). 패션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201-203.
- Derefeldt, G., Swartling, S., Berggrund, U., Bodrogi. (2004). P., *Cognitive Color.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29(1), 7.
- Dr. Fehrman, K. & Fehrman, C. (2000). *Color the secret influence*, Prentice-Hall, 82-88. *Research and application*, 29(1), 1-2.
- Nilgun, Cengiz, Dilek. (2004). *Effects of Hue, Saturation, and rightness: Part 2. Attention, Color*.